마니아 대 마니아

(요7:25~36)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니아 대 마니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니아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신경을 다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세밀하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게 됩니다, 마음을 쏟기 때문에.
이런 마니아의 예는 엄청나게 많지요.
요즘 현대인들 가장 두드러진 자동차 마니아.
돈이 많은 이 건희 씨처럼 이런 차 저런 차 세계에서 좋다는 차를 다 사서 그렇게 모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돈이 없어도 마니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사게 되면, 요런 거 뜯어 고치고 저런 거 뜯어 고치고, 붙였다 떼었다 하고 자동차에 이런 관심 저런 관심.
뿐만 아니라 뭐 바둑, 골프 마니아, 낚시 마니아, 등산 마니아, 분재, 꽃꽂이 뭐 이런 마니아로 치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마니아가 있게 되는데, 이들의 모든 특징이 바로 해박하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 기억에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들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처남인데, 의과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의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교수이시면서 의사로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부수입으로 법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수음향을 제작하는 겁니다.
특수음향을 만들어 방송국에 팔아요.
방송국에서 이러이러한 드라마에, 이런 종류의 음향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 해 가지고 컴퓨터로 소리를 만들어서 팝니다.
소리에 미친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갖고 있던 스피커를 3,000여 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다 안식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스피커를 구입하려다, 갖고 있었던 스피커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자기가 3,000만원에 팔았던 그것을 5,000만원에 다시 되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소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바둑의 세계가 있고, 분재의 세계가 있고, 골프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니아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너무나 깊고 상세한 해박한 지식들을 마니아들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할 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라 할 때 이 참되시다는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 거짓이 아니다 그런 뜻보다, 실제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이다, 실제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추측이거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압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아노니' 이 말씀이 바로 어떤 상태의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마니아의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특수효과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수효과 분야가 실제 한다는 걸 압니다마는, 그 마니아이신 교수님처럼, 그 의사선생님처럼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분재의 세계가 있습니다.
분재가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집에 가 보면, 분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긴 하지마는 어떻게 그 분재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무슨 약을 줘서 키워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자르면 똑같은 나무 씨가 자라서 모양은 완벽하게 성숙한 나무인데, 크기는 그렇게 작은 나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재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음향효과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바둑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니아들의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실재하시는데, 그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이냐 하면 바로, 이런 마니아의 세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바둑의 세계와 분재의 세계와 골프의 세계와 음향효과의 세계

와 같이, 나란히 또 하나의 마니아의 세계로 있고, 주님은 하나님 마니아가 되셔서 그 세계 안으로 마음을 쏟아 부음으로서 마음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도저히 그 쪽 세계 안으로 들어간 마니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사실들과 깊은 사실들을 신비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마니아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있다는 걸 압니다마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향효과의 세계, 3,000만원에 판 스피커를 5,000만원에 되사는 정도의 열성,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한 십만 원짜리 15만원 20만원 되는 미니 컴포넌트도 좋기만 하던데, 3,000만원 주고 팔았다가 자기 걸 2,000만원 손해 보면서 5,000만원에 되사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모를 것도 없어요. 마음을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바둑의 세계, 알려고 하면 모를 것도 없어, 마음을 쏟아 부으면 되는 거지요.

분재의 세계, 분재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특별히 더, 월등하게 잘나신 분이 아니라서 그 분들이 아는 것을 나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면 모를 것도 없습니다.

왜 참되신 하나님, 실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까?

그 세계가 실재한다고, 존재한다고 알고 있을 뿐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왜 속사정을 모르는 겁니까?

알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쏟아 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을.

'크레도', 바로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크레도'라는 말 자체가.

'코르'라고 하는 말,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말, 준다는 말이에요.
‘코르’라는 심장과 ‘도’라는 준다는 단어가 합쳐진 게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의 외아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마니아의 입장에서 마음을 쏟지 않는 다는 게 바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꾸 하늘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보고 자꾸 모른다고 그러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이 마니아의 상태로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이 다 딴 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 마니아에요.
자식 키우는 엄마는 자식 마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니아라고 말할 때, 주로 직업이 아닌 취미의 영역에서 마니아라는 말을 하지마는, 마음을 다 쏟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사업도 마니아입니다.
온통 마음을 사업에 다 집중하여 열중하고 몰입하고 있어서, 그 사업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 마니아입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나만이 마니아입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마니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애인을 사귀고 있으면, 그 남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 모릅니다, 그 남자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 마니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마니아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 마니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돈에 대해선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선 아는 게 없습니다.
자식 마니아가 된 엄마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는 해박한 마니아이지마는 하나님에 대해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꾸 다른 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니아로서 당신이 마음을 쏟고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니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은퇴한 남편이 바둑 마니아가 되어서 아침만 먹으면 기원에 가서 삽니다, 하루 종일.
점심때 짜장면 사 먹으면서 하루 종일 있다 저녁때 밥 먹을 때 들어옵니다.
바둑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단 30분도 그 담배냄새가 가득한 기원에 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으려면, 아내도 함께 바둑 마니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둑 마니아가 되지 못하면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 음향제작 마니아인 이 교수님이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도저히 아내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잠시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소리 마니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찍찍짹짹, 칵칵크크' 하는 그 소리의 창출에 매력을 느껴야만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는데 뭐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마니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마니아가 돼야 됩니다.
돈 마니아, 사업 마니아, 가정 마니아, 자식 마니아,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 만났다고 자꾸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그거 못 만난 겁니다.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마니아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마니아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마니아와 하나님 마니아, 천국 마니아.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마니아의 세계가 있어요.
합쳐서 세상 마니아이고, 그 세상 마니아 속에서 홀로 하나님 마니아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니아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빠져 나가고 쏠려 나가기 때문에, 줄줄 새어 나가고 흡수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 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서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다는 걸 알면서, 내 마음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뺏어 가려는 일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버팁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못 박혀 버렸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뺏어 가려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그게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취미이든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모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마음을 모으고 기다릴 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실제로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마니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니아가 될 때에, 우리 눈앞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활동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마음을 모았으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세계로 집어넣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내 마음을 몰아서 보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내 마음을 들여보내서 내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길은 있어요, 어떤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뺏어가려는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모아두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 친 자들이라,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 친 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인 쳤다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뺏어가려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 나는 여기에 남아 있으련다' 그러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아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그 본문들,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목 베임을 당하는데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지 않으면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마음이 천국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몸이 목 베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마음이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자 밥이 되어서 이 몸이 죽더라도, 그 마음이 평강에 이를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니아 대 마니아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하나님 마니아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마니아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주님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나도 기원에 같이 가는 아내처럼, 남편을 따라 기원에 같이 가는 아내처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마니아 대 하나님 마니아.
오늘도 세상 어떤 세계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중하며 몰입해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마음을 십자가에서 모아둡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마니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면 내 마음이 미처 가지 못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니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니아 되어서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속속들이 알아 가시는 기쁨에 젖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 빨려가려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모아둡니다.
모아둔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늘 마니아가 되게 해 주시며,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도 따라잡아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이 또한 나의 지식이 되어서, 그 지식으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